



DB산업발전을 위한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



조 동 성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DB산업은 86년 이후 매년 20%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여, 92년말 국내유통 DB 460개, DB 생산자 254개 처, 매출액 800억(추정)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래에 들어 DB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분야에 오래전부터 주의를 기울여 온 필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DB산업에 대한 관심이 DB자체보다는 통신망, PC통신, VAN, 뉴미디어 등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어떤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필자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DB산업 발전과정을 조사하여 얻은 교훈은

- ① DB산업의 정착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 ② 국가주도 또는 국가지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 ③ 과학·기술 문헌 DB에서 시작하여 점차 경제·경영·산업, 일반 DB등으로 발전한다.
- ④ 전문가·연구자 중심의 이용에서 일반 기업, 개인의 이용으로 확산된다.
- ⑤ DB의 제작에서 DB의 유통으로 중심이 옮겨간다.
- ⑥ DB의 분야별로는 색인·초록 DB에서 Fact DB, Full Text DB로 변화한다.

등이다. DB대국인 미국의 경우 이러한 발전 과정상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DB의 기획자·사업자들이 사용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수요 동향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대응해 온 점이 두드러진다.

이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편중·정보유통의 폐쇄성·공공정보 유통체계의 미흡등으로 인한 높은 정보욕구와 전화가입자 1800만명, PC보유대수 300만대 이상, PC통신 가입자 30만명 이상 등

데이터베이스 분류	진 흥 정 책
공공 데이터베이스 (통계, 특허, 과학보고서, 국가도서목록, 행정정보등)	예산할당(100%공공)
중요 데이터베이스 (포괄적인 기술혁신 DB, 국제적 전략 DB, 광범위한 사회효과 DB, <예, 화인세라믹, 신소재, 건강관리와 간호서비스, 스포츠정보등>)	예비조사를 위한 예산
기본 데이터베이스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사용, <예, 지역적 지도DB, 기술잡지 DB>)	투 자 보 증 (일본개발은행으로부터 차용)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사업, 재정, 산업, 신문등)	세 금 우 대
현재 상용 데이터베이스	국가전람회 지원9100%일반)

일단 수요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규모의 영세성, 제품상품(DB)의 질과 종류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유통 DB 460개를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의학분야 8%, 경제·경영·비즈니스분야 54%, 도서·언론분야 18%, 기타(생활·법률등) 20% 등 DB의 수록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야별로 취약(과학·기술·의학분야), 편중(경제·경영·비즈니스분야)의 경향을 나타낸다.

또 DB구축자(생산자)의 업종을 보면 총 254개처 생산자중 민간부문이 207개처(81.5%), 335개 DB(72%)를 차지하고 있어 DB구축자중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

는 앞서 제시한 주요국의 DB산업 발전과정과 비교할 때 DB산업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미흡하고, 분야별 DB에서는 과학·기술·문학 등 기초 DB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 그나마 DB산업이 DB제작보다 DB유통·정보 기술에 치우치고 있다. 즉 DB선진국의 DB산업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DB산업은 DB생산, DB유통, 발전과정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DB산업을 제대로 된 성장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DB산업에 대한 접근관



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B산업에 대한 접근 관점은

- ① 국가적 정보유통, 정보관리의 관점(예를 들어 정보의 공개, 정보유통의 광역화, 정보균점, 지역정보화, 공공성, 접근 용이성 등의 강조)
- ② 정보기술의 관점(DB서비스를 정보기술의 산물인 뉴미디어의 하나로써 강조)이 있을 수 있는 바, 현재는 이 두 관점이 혼재되어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DB산업 발전의 관건은 DB가 업무와 생활에 얼마만큼 유용한가 하는 것, 즉 수요의 인식과 그 수요의 충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DB산업에 관한 논의에서 DB자체가 PC/단말기, 통신망, VAN사업, PC통신에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기술·기술혁신은 중요한 요인이나 기술이 DB산업을 결정해서는 안됨을 선진

국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DB산업은 국가전체, 지역 또는 분야별의 정보유통·축적·관리에 의미가 있음, DB를 통해 입수되는 정보에 의해 행정, 업무, 생활의 질의 향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음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DB생산은 공공, 민간 양분야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급은 민간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실행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DB를 시장성 및 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공공DB, 중요DB, 기초DB, 신규DB 등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 DB는 정부기관의 예산할당에 의해 생산되며, 민간업자는 비즈니스, 금융, 산업분야의 DB를 구축하되 세금우대 조치를 받는다. 양자들 사이에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는 중요 DB와 기초 DB가 있

다.

이러한 예를 보면, 「DB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체적인 DB개발부서의 설립 및 DB개발 추진 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민간 DB업체에서 개발토록 하여야 하며, 개발한 민간 DB를 지원차원에서 구매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무리한 감이 있다. 현 시점에서 부진한 DB 공급측면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의 주장처럼 모든 DB의 제작·운용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나 경제성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 공공부문의 직접적 DB구축은, 자체기관의 업무의 전산화와 연계되거나 일관성·계속성·신뢰성·경제성 측면에서 또는 해당 DB에 수록될 정보의 특성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착수하여 민간부문에 이관하는 (예를들어 공공기관이 일단 DB를 구축한 후 이의 UPDATE를 민간에게 위탁하던가 이의 확대를 위탁하는 방법) 순서도 고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각종 조사에 의하면 DB생산자의 경우 자료 수집과 분석, 초기투자비, 그리고 투자의 규모와 장기적 회수 소요기간 등이 DB생산의 주요 장애물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와 같은 DB산업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부문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DB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생산권(또는 생산책임)의 양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생산한 DB의 공개·저가 보급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DB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DB제작자의 구성변화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러하다.

< 미국 DB제작자의 구성변화 >

(단위 : %)

년도 \ 제작자	77	85	88	89
정 부	56	21	20	17
비영리기관	22	11	13	12
민 간	22	57	65	68

즉, 초기에는 정부·비영리기관이 DB제작을 주도하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는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도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DB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DB산업의 발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DB생산을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되 점차 이를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DB의 유통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이 주도를 하되, 각 분야·지역별로 핵심 DB를 선정하고, 이들 핵심 DB에 대하여는 정부·공공부문이 최소 이용자 확보, 공동시장 조사, 공동 홍보, 통신망 Gateway 우선 할당, 시범시 우선 시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DB의 유통·보급을 위하여 시장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되 DB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케팅 초기활동(특히 Awareness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부문이 전부 부담하기에 무리일 것이기 때문이다.